

7/6(수) 시편 136-139편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헤세드) 근거합니다.

역사가 계속되는 한, 하나님의 구원과 인자하심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헤세드) 영원하며 시대를 초월합니다.

(136편, 36:5-9, 57:10, 119:64)

이스라엘은 <포로기>라는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했습니다.

<찬양이나 한 곡조 뽑아보라>는 원수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137:3),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통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연한 그리움이나 향수병이 아니라 <영적 훈련>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수치와 모멸 속에서도 <찬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해방의 날, 그들은 진정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138편).

영원한 인자와 구원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138:7).

<공동체>의 신앙은 <개인>의 신앙으로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모든 것을 아는 분입니다(139:1-18).

인간은 존재하는 순간부터 삶 전반, 모든 것에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는 억압과 굴레가 아니요 참 자유입니다.

시인은 알면 알수록 더 알 수 없는 하나님에 경탄합니다.

<기묘하심과 기이함>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임을 인정합니다(139:14).

그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두 맡김으로 자유를 누립니다.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사 기도합니다(139:23-24, 요15:5 참고).

나와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성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① <바벨론수치/모욕/실패/눈물>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②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 더욱 믿게 되는 신앙의 신비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시편5권 (107–150편)

편	유형	편	유형
107	공동체 감사시	129	공동체 탄식시
108	혼합유형 (=57:1-11, 60:5-12)	130	개인 탄식시(참회)
109	개인 탄식시	131	신뢰의 노래
110	왕조 시편	132	다윗계약 제의기도문
111	찬양시(아크로스틱 알파벳)	133	지혜시편
112	지혜시(아크로스틱 알파벳)	134	제의기도문
113	찬양시	135	구속사 시편(찬양시)
114	찬양시	136	구속사 시편(찬양시, 공동체 감사시)
115	제의 기도문	137	공동체 탄식시
116	개인 감사시편	138	개인 감사시
117	찬양시	139	개인 탄식시(지혜시)
118	개인 감사시(왕조)	140	개인 탄식시
119	토라(지혜) 시편	141	개인 탄식시
120	개인 탄식시	142	개인 탄식시
121	신뢰의 노래	143	개인 탄식시
122	시온의 노래	144	왕조시편(1-11)
123	공동체 탄식시	145	찬양시(아크로스틱 알파벳)
124	공동체 감사시	146	찬양시
125	신뢰의 노래(공동체 탄식시)	147	찬양시
126	공동체 탄식시	148	찬양시
127	지혜시편	149	찬양시
128	지혜시편	150	시편서 결론 송영